

## 한국 현대 여성문학사의 흐름과 그 특성

정영자\*

1. 머리말
2. 여성문학과 여성문학사는 필요한가?
3. 한국 현대 여성문학사의 흐름과 그 특성
4. 한국 현대 여성문학의 전망
5. 맺음말

### 초 록

기존의 현대문학사가 남성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남성 이데올로기의 담론적 제양상이 시대적 반영이라는 편향성의 요동을 상징한다고 하면, 이제 기존의 편향성은 새로운 문학사의 기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대적 각성으로 출발된 한국 여성문학은 여성문인들에 의하여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로서의 사명감으로 문학을 그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하였으며 삶의 의미를 자유에 두었다. 감미로운 시가 있는가 하면 불의에 항거하여 울분을 토하는 현실비판의 저항 시도 있고, 여성의 한(恨)을 잇는 전통적 서정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1920년대의 여성시는 서정을 바탕으로 하는 허무의식과 비애감이라고 한다면 소설은 여성해방과 자유연애사상을 그 주제로 하여 시와 소설이 매우 대조적이었다. 또한 시인과 작가를 함께 검열하는 20년대 여성문학의 특성은 1930년대 소설에 오면서 시인과 작가의 뚜렷한 장르의 전문화를 보여준다.

여성문학사의 흐름과 그 특성은 남성과의 차별화이기보다는 경험적 증언을 바탕으로

\* 신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로 한 차이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문학사의 또 다른 소외문화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길이 우리 문학사의 올바른 정립이라고 본다.

## 1. 머리말

급변하는 국제사회와 통일실현이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우리 문학은 순수문학과 민중문학, 민족주의 문학과 외래 사조의 영향권에 있는 문학 등 다양성의 문학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참다운 문학적 가치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현대문학사의 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문학풍토에서 1세기에 걸친 현대문학사를 객관적으로 재조명하고 새롭게 기술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긴 역사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도 매우 다채로운 양상으로 현대문학사는 기술되었고, 이제는 보완이나 수정의 단계가 아닌 남북문인 작품에 대한 해금조치와 함께 여성문학을 새롭게 조명해야 할 시기이다.

오늘날 우리의 문학사 연구는 시류적 취향이나 시대적 반영이라는 편향성에 휩쓸리고 있는 듯한 감이 없지 않다. 우리의 문학을 서양의 유행적 문학이론만으로 재단하여 우리 것을 폄하하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문학은 정치보다 진실하며 역사는 현실보다 더 가치 있는 우리들 삶의 좌표이다.

기존의 문학사에서 도외시하고 있거나 몇 줄의 극히 제한된 한 부분으로 정리되고 있는 여성문학사의 흐름을 조망하면서 새로운 여성문학사의 정립과 그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문학사는 써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 써야 할 것이다.

## 2. 여성문학과 여성문학사는 필요한가?

여성문학은 여성에 의하여 쓰여지고 여성의 삶과 인식에 적합한 표현

과 진단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여성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문학이어야 할 것이다.

남성에 의하여 쓰여져서 그 여성적인 것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나 여성성의 회귀에 대한 긍정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남성의 시각에서 조명되고 판단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성문학의 범주에는 넣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자신의 시각과 체험을 통하여 여성의 섬세하고 미묘한 심리상황과 개방된 사회에서 부딪히는 갈등의 문제와 남성과의 대립, 조화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와 의지의 긴장, 철학적 만남의 심화 등이 여성문학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또한 현실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아직도 가부장제사회에의 여성실존의 문제 제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sup>1)</sup>

여성문학은 ‘여성성’의 드러내기와 여성주의적 시각이라는 ‘여성적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성의 드러내기’는 오랜 전통과 인습으로 인하여 고착화된 인위적인 사회적 성과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여성성의 고유성을 말하며, 모성적 원리도 포함해야 될 것이다.

여성주의적 시각은 필연적으로 현실 비판적 성격을 띠면서 타의적으로 강요된 기존의 틀을 거부하고 여성의 문제를 여성 자신의 방법과 전략으로써 증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남녀 평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모순된 제도와 정책과 문화적 배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페미니즘적 방법이다.<sup>2)</sup>

따라서 위의 두 가지 관점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문학은 모두 자의식을 지닌 용어이며 여성에 의하여 쓰여지고 여성성의 특성 및 여성의식의 열림과 새로운 세계로의 창조를 모색하며 여성문제를 현실 비판적 인식 속에서 다루어진 문학으로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문학이다. 여성문학은 진정한 여성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학이면서 이것이 여성 개인

1) 정영자, 「한국 현대 여성문학의 현황과 그 특성」, 『인간성회복의 문학』(지평, 1992), pp.110~111.

2) 정영자, 「한국여성주의(Feminism) 문학의 전개과정과 전망」, 『인간성회복의 문학』(지평, 1992), pp.140~141 참고.

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문화적 내용 속에 인간화의 진정한 위상으로써 대우받는 여성적 삶을 그 바탕으로 할 때 이루어지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기존의 현대문학사가 남성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남성 이데올로기의 담론적 제양상이 시대적 반영이라는 편향성의 요동을 상징한다고 하면, 이제 기존의 편향성은 새로운 문학사의 기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대에 따라 변하여 가는 문학적 제 현상을 고찰하여 현대문학의 발달경로를 탐구하며 동시에 오늘의 우리 생활을 이해하려는 문학의 역사적 전개양상인 현대문학사는 역사이해와 가치부여의 과정에서 손실되기 쉬운 문학의 전통적 양식과 치열한 문학적 정신을 존중하면서 당대 현실과 제도로부터 소외되고, 제대로의 가치부여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었던 여성문인과 그 작품의 새로운 평가를 목표로 하는 여성문학사의 정립이 요청되는 것이다.

### 3. 한국 현대 여성문학사의 흐름과 그 특성

#### 3.1 기존 『현대문학사』에 기술된 여성문학사

김일엽은 192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시인이며 작가였으나 모두 문제될 만한 작품을 남기지 못했으며, 김명순은 『생명의 과실』(1925)이라는 시와 소설을 함께 모은 창작집이 있으나 유치한 작문을 넘어서지는 못했다고 기술되고 있으며,<sup>4)</sup> 이름 석자만 소개되면서 작품 없는 여성문인으로 오도되고 있으며<sup>5)</sup> 1930년대의 문학사에서도 몇 가지 특성을 논하면서 그 밖의 작가들만으로 단 너 줄의 기술로 여성문학의 언급은 끝나고

3) 정영자, 「여성적 원리 수용과 여성해방적 시각」, 『문학사상』(1990.2.), p.106.

4)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성문각, 1982), p.457.

5) 오세영, 『현대시와 실천비평』(이우출판사, 1983), p.63.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의 이해』(일지사, 1984), pp.438~440.

있다. 「하수도 공사」의 박화성, 「어머니의 딸」의 강경애, 「여자의 마음」의 장덕조가 특히 두드러진 여성문인으로, 그 밖에 백신애·이선희·임옥인 등 해방 후까지 작품활동을 한 여성문인을 소개하고 있다.<sup>6)</sup>

50년대 문학사에서서는 김남조의 초기시의 자아 집착을 벗어나면서 정서의 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상상력의 풍요로움으로 언급되고<sup>7)</sup> 지적인 풍모의 절제된 언어로서 정서의 충일을 균형있게 조절하고 있는 홍윤숙의 평가와<sup>8)</sup> 60년대 소설에서 박경리, 강신재, 임옥인, 손장순, 박순녀의 소설들이 간략히 기술되고<sup>9)</sup> 권영민은 박경리와 손소희, 강신재, 한말숙에 대하여 비교적 언급의 폭을 넓히고 여류시의 위상이 시단의 중요한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잡게 된 것을 60년대를 넘어서서 이룩한 성과로 평가하고, 허영자, 김초혜, 강은교, 고정희, 김승희의 시를 보기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sup>10)</sup> 70년대 시인에는 노향림, 최승자, 김혜순의 이름만 나오고<sup>11)</sup> 70년대 소설에서도 박경리, 박완서 등이 이름만 소개될 뿐 1980년대에 가서야 비로소 윤정모와 양귀자에 대한 압축된 특성 등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다.<sup>12)</sup>

그러나 권영민은 박완서, 오정희, 서영은, 박경리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한 평가와 함께 그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sup>13)</sup>

『현대문학』 1985년 10월호의 「우리문학의 어제와 오늘」 특집에서는 50년대의 문학사에서 1980년대 문학사를 기술하고, 『문학정신』(1986.12)

6) 장양수, 「소설경향의 몇 가지 흐름」, 『한국현대문학사』(현대문학, 1989), p.218.

7) 권영민, 『심포지엄문학사(1945~1990)』(민음사, 1993), p.126.

8) 위의 책, p.193.

9) 김윤식, 김우중 외 30인, 『심포지엄문학사』, 1989, p.402.

10) 권영민, 『심포지엄문학사』(1945~1990)』(민음사, 1993), pp.164~167, 271~277.

11) 김윤식, 김우중외 30인, 『심포지엄문학사』(현대문학, 1989), p.452.

12) 신덕룡, 「폭력의 시대와 80년대 소설」, 『심포지엄문학사』(현대문학, 1989), p.518.

13) 권영민, 위의 책, pp.297~302, 341~342.

에서는 우리 문학 80년을 결산하고 있으나 박경리, 서영은, 전혜린의 이름 정도의 거명으로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김윤식은 60년대 문학의 특질에서 김수영과 전혜린을, 김우중은 최정희, 김명순, 박화성, 강신재, 박경리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한 기술 등을 하고 있다.<sup>14)</sup>

『1950년대의 소설가』에서 19명의 소설가들을 연구한 책에서는 최정희론, 박경리론, 강신재론이 실렸고<sup>15)</sup> 『1950년대 문학연구』에서는 유일하게 박경리론이 실려있으며<sup>16)</sup> 김윤식 평론집인 『작가와와 대화』에서는 18명의 작가와의 대화를 박완서, 김채원, 신경숙론으로 국한되어 있으나 전혜린 재론을 통하여 전혜린의 문학적 성과를 조명하고 있다.<sup>17)</sup> 은 몸으로 살았던 걸출한 문인으로 보고 전혜린에 대하여 문학사의 새로운 무대로 안내하고 있고,<sup>18)</sup> 최승자, 고정희의 특성과 서영은의 부상을 특기한 이동하의 문학사 기술도 돋보인다.<sup>19)</sup>

이세신의 『현대한국소설사』에서는 오정희외 한말숙외 작품에 대하여는 간략한 기술로 끝나고 있으나 박완서에 관하여는 관심을 보이고 박경리의 『토지』에 대하여는 「농경적 상상력과 『토지』」라는 논문으로 집중연구를 하고 있으며,<sup>20)</sup> 박완서 연구로는 단행본이 나와 있고,<sup>21)</sup> 박경리 연구는 단행본이 여러 권 나와 있으며, 석사학위 논문이 많다.<sup>22)</sup> 1910~

14) 김우중, 『심포지엄소설사』(성문각, 1982), pp.272~273, 284~285, 349~353, 382~385.

15) 송허춘, 이남호 편, 『1950년대의 소설가들』(나남, 1994).

16) 문학사와 비평연구회편, 『1950년대 문학연구』(도서출판 예하, 1991).

17) 김윤식, 『작가와와 대화』(문학동네, 1996).

18) 김윤식, 「60년대 문학의 특질」, 『현대문학』(1985.10), pp.66~67.

19) 이동하, 「80년대 문학의 현황과 전망」, 『현대문학』(1985.10), pp.84~85.

20)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민음사, 1991), pp.359~383.

21)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정』(동지, 1997).

22) 임우기, 정호웅편, 『토지사전』(솔출판사, 1997).

정현기 편, 토지비평 1, 『恨과 삶』(솔출판사, 1994).

토지비평집 2, 『한·생명·대자대비』(솔출판사, 1995).

최유찬, 토지비평집 4, 『토지를 읽는다』(솔출판사, 1996).

1980년대의 『심포지엄시론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43명의 시인 가운데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김승희의 시론만이 언급되고 있으며,<sup>23)</sup> 『90년대 한국 소설의 표정』에서는 신경숙론과 박완서론이 포함되고 있다.<sup>24)</sup>

이상으로 살펴본 현대문학사에서 여성문학사는 소외받고,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문인들의 작품들은 평가와 특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영역에 들어와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보다는 소설쪽, 특히 박경리, 박완서, 강신재 등의 작가들이 대체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신경숙, 양귀자 등의 작가와 김승희, 고정희, 최승자 등의 시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여성문학사의 정리

현대여성문학사의 논의는 한영옥의 「70년대 여류시 개관」,<sup>25)</sup> 고정희의 『한국여성문학의 흐름』<sup>26)</sup>이 있으나 본격적인 한국 현대 여성문학사의 정리는 1920년대, 1930년대 한국 여성문학을 연구한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sup>27)</sup> 최근에는 「한국여성시의 이해와 감상」<sup>28)</sup>이 고대시가에서 70년대시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그 이후 「한국여성문학연구」 다시 보완한 『심포지엄여성문학론』(지평,

『수정의 메아리』(솔출판사, 1994).

한국문학연구회, 토지비평집 3, 『토지와 박경리 문학』(솔출판사, 1996).

위의 저서에서만 38편의 논문이 있고 그 밖에 석사학위 논문 등도 많이 있음(정영자, 「박경리 소설연구」, 『수련어문논집』 24집, 수련어문학회, 1998.4, pp.258~264 참고)

23) 이승훈, 『심포지엄시론사』(고려원, 1993), pp.393~397.

24) 김윤식, 『90년대 한국소설의 표정』(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25) 한영옥, 「70년대 여류시 개관」, 『현대시학』(1980.11).

26) 고정희, 『한국여성문학의 흐름』, 『또 하나의 문화』제2호(평민사, 1986).

27) 정영자, 한국여성문학연구-1920년대·30년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28) 허영자·한영옥, 『한국여성시의 이해와 감상』(문학아카데미, 1997), pp.9~21.

1988)에 이어 『인간성 회복의 문학』(지평, 1992)의 제2장 ‘한국페미니즘문학’과 『한국여성시인연구』(평민사, 1996)와 『한국페미니즘문학연구』(좋은날, 1999)는 한국 현대 여성문학사 기술을 위한 하나의 준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이와 같은 연구는 여성학자들에 의하여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sup>29)</sup> 그 밖에 여성작가론과 여성 시인론은 매우 많다.

페미니즘은 문예지의 특집 등으로 다루어 졌으며<sup>30)</sup> 여성운동을 사회전반의 변혁운동으로 바라보며 철저한 리얼리즘의 특성을 보이며 『여성』 1~3호, 『여성과 사회』 1~4호를 발간하면서 소모임으로 활동하는 한국여성연구회와 고정희, 조혜정, 장필화, 조옥라의 『또 하나의 문화』팀은 가부장제 문화를 집중공략하고 대안의 문화를 창조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고, 최근에는 『또 하나의 문학』 7호(1991.7)에서는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 8호(1991)에서는 새로 쓰는 성 이야기, 11호(1996.4) 12호(1996.7)에서는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 등의 사회문제 안에서의 사랑, 성, 결혼의 논거를 문제삼고 있으나 문학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심으로 기울어져 있고,

29) 서정자, 일제 강점기 한국 여류소설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12.

- 김정자, 『한국 여성소설연구』(민지사, 1991).
- 정순진, 『한국문학과 여성주의 비평』(국학자료원, 1992).
- 송지현, 『다시 쓰는 여성과 문학』(평민사, 1995).
- 송지현, 『페미니즘 비평과 한국소설』(국학자료원, 1996).
-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근대편)(한길사, 1996).
- 강금숙, 김옥순, 박경혜, 신은경, 이경희, 『한국페미니즘의 시학』(동화서적, 1996).
- 한국문학연구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현대편)(한길사, 1997.6).
- 허영자, 한영옥, 『한국 여성시의 이해와 감상』(문학아카데미, 1997.9).
- 김현자, 김현숙, 이은정, 『한국여성시학』(깊은샘, 1997.12).
-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신구문화사, 1996).
- 30) 한국문학의 여성주의문학, 『문학사상』(1990.2).
-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외국문학』(1990.봄).
- 한국문학에 나타난 페미니즘, 『동양문학』(1991.3).
- 한국의 페미니즘문학, 『문학사상』(1991.9).



『여성운동과 문학』팀에서는 김영혜, 이명호, 이해경의 연구와 한국 여성 학회는 여성 체험의 기술을 특집으로 하여 각 분야에 걸친 여성시각을 자극하고 장려하는 통합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 여성문학연구회는 정영자, 김정자 등을 중심으로 기존 문학사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 발굴 및 작품소개, 재평가들에 기여하며 가장 문학 중심의 연구를 그 동안 수십 차례의 여성문학 및 페미니즘 문학관련 세미나를 열고, 『여성과 문학』을 2호까지 발간하였으나 최근 다시 3호 발간의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김복순, 이호숙, 이상진, 변신원, 김미현, 송인화, 이덕화, 김혜옥, 김혜리 등은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근대편(1995), 현대편(1997) 등을 발간하면서 근대편에서는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 박화성, 백신애, 강경애, 김말봉, 최정희, 이선희, 지하련 등을 연구하였으며 현대편에서는 임옥인, 손소희, 강신재, 한무숙, 박경리, 송원희, 한말숙, 정연희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비록 페미니즘 연구를 표방한 여성 권리적 담론이지만, 경향 각처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 3.3. 한국 현대여성시의 흐름과 그 특성

문학사를 대체로 10년 주기로 하여 분류하면 1910년대 문학을 개화기 문학, 1920년대 전기문학을 근대화문학, 1920년대 후기문학을 프로생성 문학, 1930년대 전기문학을 순수기 문학, 1930년대 후기문학을 다양성화 문학, 1940년대 전기문학을 암흑기문학, 1940년대 후기문학을 해방기문학 1950년대 문학을 전란기 문학, 1960년대 문학을 경제개발기 문학, 1970년대 문학을 산업발전기 문학, 1980년대 문학을 민주화추진기 문학, 1990년대 문학을 문민시대의 문학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시문학으로 일관된 한국고전여성문학은 정한(情恨)의 문학이며 현실을 추구하고 현실을 지향하는 우아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1910년대의 한국 현대문학사는 주지하는 바 춘원과 육당의 두 사람 문단시대이다. 여기에 직접 참여한 여성문인은 1917년 17세의 젊은 나이로 『청춘』지의 현상문예집을 통하여 소설, 「의심의 소녀」가 당선된 김명순이 유일한 여성작가로 등장하였다. 그렇다면 1910년대는 김명순과 더불어 이광수, 최남선의 삼인문단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명순은 1920년대 초반의 신문, 잡지를 통하여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였으며 한국 현대 여성 최초의 시집인 『생명의 과실』이 1925년에 상재되었기에 1920년대 문인으로 분류하였다.

1920년대 여성문학은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의 삼인 여성시대를 형성한다. 그들은 모두 시, 소설, 시조, 수필 등의 종합적 장르를 추구했고 동경 유학생 출신의 신여성으로서 여성의식과 여성해방, 자유연애사상 등을 주장하였다. 본격적인 작품활동 기간이 짧았으며 불행한 삶을 영위했고, 김일엽만이 비극적인 절망의 세계를 불교의 해탈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문학사는 그들의 작품의 수는 지극히 적었고 그 작품의 평가도 수준 이하로 취급하고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피상적인 기술일 뿐이다. 작품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문학사적 평가를 받아야 할 작품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한 묶음으로 단평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20년대라는 애매하고 기형적인 시대에 뿌리를 내린 여성문학은 제대로 방향 조절이나 심화된 문학적 업적을 쌓기도 전에 인생의 종말을 고했던 것이다.

김명순은 상징주의와 표현주의 시에 영향을 받았으며 초기소설은 이광수와 김동인 시대의 교량적 역할을 하였다. 김일엽은 자전적 고백형식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수필로 묘사하였으며, 불교적 색채가 짙은 시조를 발표하였다.

나혜석은 여류화가로 알려진 여성 선각자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시론(時論)과 세계여행의 기행문을 통하여 주장하였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는 칼럼니스트의 기질을 보여준 작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20년대 여성시의 특징은 1919년 3·1운동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과 울분, 그리고 감상적 낭만주의가 풍부하던 그 당시의 사조에 편승하기도 하였으나 한국여성의 고유한 정한의 전통성을 유지·발전시키면서 서정을 바탕으로 하는 허무의식과 비애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0년대의 시는 감정의 절제와 들끓는 열정을 적절히 묘사한 노천명과 민족에 대한 끈질긴 사랑을 노래한 모운숙으로 한 특성을 이루고 개인적 정서에서 민족장래와 민족의 현실문제로 확산되어 본격적이고도 다양한 여성시문학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30년대의 여성시조는 고시조의 형식과 내용의 틀을 획기적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현대시조의 명백유지라는 선에서 머물고 말았으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시 양상을 보인다.

40년대의 시는 민족해방의 감격과 함께 찾아든 순수 낭만주의적 경향과 전원적 목가적 찬가의 내면세계의 침잠으로 되돌아갔고 50년대의 여성시는 김남조와 홍윤숙으로 대표된다. 6·25의 비극적 체험이 인간실존의 어려움과 그 무의미성에 대한 뿌리깊은 허무와 절망을 심어 주었다. 일제 36년의 식민지 체험 이상으로 패배주의와 절망을 심어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남조는 서정성의 답습으로 인간 생명에의 유일성과 그 한계성에서 오는 허무의지를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기도시의 전형성을 보여주면서 사랑과 생명에 대한 끈질긴 탐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홍윤숙은 초기시의 감상적인 애련을 극복하고 사회비판, 여성심리의 정확한 표현과 함께 풍자적인 현실인식을 뚜렷이 하여 우리 의식의 동참을 노래하고 있다.

1956년 시집 『병실』을 출간한 김지향은 감성의 위험을 넘어서는 원시적 생명의 욕구를 상징적, 시각적 이미지로 현실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고, 1959년 『현대문학』으로 문단에 데뷔한 김후란은 사랑과 평화에의 지향성을 가지면서도 상징주의적 기법으로 사회의식을 예리하게 드러내면서 서사시집 『세종대왕』을 통하여 세종대왕의 위업을 감동적으로 서술하면서 인간적인 고뇌와 사상의 내면세계를 적파하고 있다. 서사시의 주

인공이 민족적이면서도 인류학적인 위대한 인물로 연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 외 50년대의 시인으로 강계순, 박정숙, 박정희, 박현령, 추영수, 추은희, 최선령, 함혜련 등이 있다.

1960년대의 여성시는 「청미」와 「여류시」 동인 그룹을 중심으로 여성시의 질적이며 양적인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김선영, 김숙자, 김혜숙, 김후란, 박영숙, 추영수, 허영자의 7인으로 1963년에 발족을 본 청미회는 1968년에 임성숙, 이경희 등이 새로 입회하였고, 1993년 이후 7인의 동인으로 1998년도 청미동인시지 총집을 내어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였다.

허영자는 시어의 과감한 절제와 전통적 이미지에 집착하여 사랑의 문제를 부끄러움이라는 고통의식과 참회의식에 접맥하고 있다.

60년대의 여성시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과 허무감, 그리고 지향없는 그리움과 일상사에 대한 깊은 탐구의 시선을 그 공통점으로 하여 섬세한 감각과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였다. 특히 내면적 파념세계의 성과를 이룬 강은교는 개인적 사유에서 사회로 확대된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것으로 그의 시의 격을 높여 왔다.

60년대의 시는 비판의식을 앞세우고 사물을 투시하려는 지성적인 발상으로 시도되었으나 현실감의 결여와 애매성에 머물고 말았다.

70년대의 시는 산업사회의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문명 비판적 경향과 전통적인 여성적 정한의 세계의 내면의식과 인간실존의 문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부류, 동양의 습관적인 윤리와 묘사에 대한 자연의 질서에 대한 순응주의의 기교적인 묘사와 쉽게 격하거나 쉽게 수 그리지 않고 사물의 양상에 대한 느낌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표현해 간 경향 등의 다양성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영옥은 70년대 여성시의 특성을 성찰과 리얼리티, 풍경과 꿈의 관계, 형상화의 대담성, 언어에의 충실성, 존재의식의 심화<sup>31)</sup>로 보았으나, 현실참여시와 언어의식을 탐구하는 순수시 등의 다양한 면모가 엿힌 가

31) 한영옥, 70년대 여류시 개관, 『현대시학』(1990.11), pp.42~61.

운데 여성 시인으로 노향립, 이해인, 고정희, 국효문, 김승희 등이 활발한 시작활동을 한다. 김승희는 시 세계의 비정함을 드러내면서 말의 낮설음·이질감을 통해 반란과 폭력과 혁명을 절규하는 고통의 소리로써 시를 썼다. 그리하여 슬픔의 뒤영킴, 파괴의 현장, 아픔의 소리들로서 그의 시에는 평화와 안식이 추방되고 있다. 무너지는 삶·불안·전율·공포 등이 그 특성이다. 따라서 동적이며 지적인 여성시의 새로움을 보이면서 직감적인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다.

이해인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단조로운 일상에서 접하는 사소하고 무상한 사물과 인정을 영원 속에 연결하려는 끊임없는 지향을 보이고 있다. 위대한 자연의 섭리와 해맑은 동심의 세계가 있어 종교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있다.

70년대부터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던 경향은 80년대 오면서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내용이 그 뿌리를 착실히 내리고 있다. 여성시 동인지 『문채』가 이향아, 유안진, 신달자에 의하여 나와 『문채』·『여류시』동인과 함께 새로운 동인운동을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에 오면서 동인활동은 미미한 가운데 여성시에 있어 순수 서정시의 정한의 세계와 일상의 내면적 성찰은 계속 큰 흐름으로 주도되어 왔다.

김소엽은 한국전통 서정의 사랑과 그 사랑을 위해 영원절대 세계를 노래하는 구원과 사랑의 시인으로 순수 무구한 기도형식을 취하고 있다.

80년대에 들면서 여성시는 그 양적인 확대가 되고 있으나 그 질적 수준은 그 양적인 평균치에 뒤떨어지고 있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80년대 여성시의 낮설음을 최승자의 시에서 만날 수 있다. 강렬한 비극성을 열정적으로 보여준 최승자는 외로움·고독을 극복하려는 따뜻한 의 갈구를 비극성에서 찾았던 것이다. 처절한 비극과 욕설·야유로서 언어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는 80년대의 이단적인 강렬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 외 김승희, 고정희 등의 시에서는 강렬성, 평등성, 지적 세련미가 돋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여성시는 한(恨)·사랑·이별·기원이

그 주제를 이루고 최근에 오면서 언어의 절약적인 한 특성과 장시와 연작시, 그리고 산문시 등의 형식적 변화가 오고 있으나 차츰 철학적이고 역사 인식적인 면을 수용하는 등의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1990년대에 오면 허수경은 키보드의 세대시인으로 도발성과 즉흥성으로 농촌의 삶에 뿌리를 내리며 청승맞게, 그리고 능청스럽게 삶을 표현하는 그의 시어는 대담하고 진솔하다. 새로운 영웅주의와 냉소주의에 머물고 있는 최영미는 단 한 권의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문화적 영웅이 된 신화성을 가진 시인이 되었다. 그 외 박라연, 이연주 등이 독자적 시 세계를 모색하고 있다.

### 3.4. 한국 현대 여성소설의 흐름과 그 특성

1910년의 이광수·최남선의 두 사람 문단시대를 이어 김동인에 선행되고 있는 김명순은 1917년에 『청춘』지에 현상모집 소설에 당선되어 소설가로 데뷔했고 그 데뷔작품인 「의심의 소녀」는 전세대의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남존여비의 현실에 과감히 도전하는 내용이다.

사회의 제도와 관습에 정면 도전하며 목숨을 바친 젊은 어머니나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어린 범네는 새로운 현실에 눈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와 의식을 낳기 위한 속죄양 의식이 농후하다.

「의심의 소녀」가 발표된 1917년은 이광수가 남녀의 애정문제를 혁명적이고 이상적인 경향으로 묘사한 때이다. 따라서 김명순의 「의심의 소녀」는 남녀평등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기본인권에 대한 자각이라는 주제성이 강하고 「꿈 묻는 날」도 자유 연애론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1920년대의 세 명의 여성문인 가운데 승려가 된 김일엽도 출가 전의 소설, 「어느 소녀의 사(死)」에서 전통적인 결혼관에 반기를 들고 자살로써 자유결혼관을 보여주었고 「자각」에서는 정신적인 이해와 애정이 없는 삶이란 노예의 생활과 같다고 깨달은 가정주부가 자신의 살길을 찾아 신학문을 공부하는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강조하여 한국판 노라를

만들어 놓고 있다.

나혜석은 「원한」에서 자신의 신세를 망치게 한, 집안에서 뛰어나와 자각적인 삶을 개척하는 여성의 삶을 보여주고 「현숙」에서 화가 지망의 청년과 카페 여급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1920년대 문인들인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은 여성해방과 자유연애 및 개인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시대의 선각자로서 작품주제를 뚜렷이 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도와 부조리한 현실의 온갖 규범에 항거하고 남녀평등, 인간회복을 주장하였다.

1920년대의 여성시는 서정을 바탕으로 하는 허무의식과 비애감이라고 한다면 소설은 여성해방과 자유연애사상을 그 주제로 하여 시와 소설이 매우 대조적이었다. 또한 시인과 작가를 함께 겸업하는 20년대 여성문학의 특성은 1930년대 소설에 오면서 시인과 작가의 뚜렷한 장르의 전문화를 보여준다.

30년대의 소설은 여권쟁취의 목적성은 퇴색해 가고 빈곤의 문제와 의식의 개조라는 현실인식이 그 주제가 되고, 여성문제와 여성화의 심화와 여성본능 등의 문제에도 심취하는 한편 김말봉의 대중소설이 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제 식민지 후기의 시대적 상황에서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민족적 당면과제임이 절감되었기 때문이며,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비판적 자세가 높아져서 소설문학이 시문학을 앞질러 활발히 창작되었다.

박화성, 백신애, 강경애 등은 사실주의 정신으로 당대현실을 고발하는 인간평등으로서의 여성해방이론을 작품화시켰고 최정희는 여성의 ‘바람기’와 본능의 문제를 모성과 이성의 갈등으로 구상화하였으며 김말봉은 표면적 주제인 애욕을 보여주는 대중소설가로 인식되어 있으나 이면적 주제로서 당대의 모순적 제도를 비판하였다.

1940년대의 한무숙은 인간의 심층심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근대사의 흐름을 다룬 역사소설과 한국고유의 여인상과 화류계의 품위와 생리 등

을 다루는 등 다양한 계층의 심리묘사를 통하여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손소희는 정밀한 관찰로써 성격의 부각은 물론이거니와 그 여성 심리묘사에 뛰어났으며 전통적인 한국여인의 한을 소설미학으로 심화 확대시킨 반면 죽음회귀에의 토속적인 정서를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감각적인 묘사로서 '보여줌'의 소설공간을 개척하여 발달한 생명체로서의 인물 구성에 그 묘사기법을 구사하여 특이한 세계를 구축하였다. 마치 카메라로 서서히 풍경을 찍듯 색채어와 감각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등장하여 어떻게 쓸 것인가를 문제 삼고 있다.

1950년대의 소설은 현대물질문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속에서의 인간의 갈등을 심도 있게 추구하면서 애정의 모랄을 제시하는 정연희와 사회의식이 강한 작가인 박경리 등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다.

박경리는 사회와 현실의 추악하고 악랄한 진상을 파헤치며 절박하게 고반한 초기소설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며 확대하여 우리시대 소설의 새로운 지평인 대하소설 『토지』 3부를 썼다.

『토지』는 20세기를 전후해서 평사리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갖가지 농촌의 일상사와 최참판댁 일문의 운명을 그린 제1부와 간도에 건너간 조선사람들과 그 중에서도 최참판댁 마지막 혈손인 서희의 도약을 노리는 조용한 활동을 그 내용으로 한 2부와 다시 서울과 진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평사리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 등이 그 골격으로 된 3부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의 핵심은 토지이며 그 토지를 둘러싸고 빼앗기고 다시 빼앗으면서 그 토지에 뒤엉켜 사는 소용돌이와 '적의'와 분노가 교차된다.

박경리는 늘 당하기만 했던 여인의 고통스러운 한의 경험론적 운명관을 넓고 깊은 민족적 경험으로 심화 확대시켰다.

60년대는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한 상징적이고 우화적인 수법을 주로 사용한 서영은과 탄력성 있는 문체와 여성만이 포착할 수 있는 미묘한 심리를 즐겨 다룬 오정희는 60년대 소설의 한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



었다.

오정희의 소설기법은 소설의 비소설화를 보여주면서 형식의 구태스러운 명확성에서 현대적 모호성을 보여주는 좋은 보기가 된다. 소설내용과 형식의 모호성과 애매성은 소설의 난해성 내지 정신적 갈등의 집중과 분산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현대인의 일상적인 삶의 흐름을 그 자체적인 삶의 특이성, 신기성, 폭로성을 통하여 의식세계와 무의식 세계와의 혼류를 나타내고 있다.

1970년대 소설은 현대인의 삶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내는 비정한 여류작가 박완서로 대표될 수 있다.

‘전천후 폭격기’로서 왕성한 비판력을 그 주조로 한 그는 사회의 비리를 거침없이 파헤치며 저항하는 작가이다. 부끄러움 없이 나무나 가혹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여자들을 분석하고 있는 그는 여성학대소설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삶의 허구성과 여기에 따른 인연의 허망함, 그리고 부유함의 사상누각적 위태로움과 권태감, 무력감 등은 소설의 재미로서도 성공하고 있다.

강경원은 젊은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시대가 처한 정신적인 위험수위를 새로운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다.

김지원은 의식의 열림과 현실을 직시하는 비판능력과 상황을 판단하는 예감을 가졌음에도 행동에 대한 자제와 도덕성이 공존하는 정황묘사에 뛰어나다.

특히 결혼하고 7, 8년 이후 권태기에 접어든 여자들이 앓은 병을 여성의 풍속도와 더불어 고운 문체로 펼쳐 보인다. 여자도 느끼고, 사고하는 욕망을 가질 줄 아는 인간이라는 자각에서부터 출발한 현대여성의 이쁨과 고뇌를 묘파하고 있다.

1980년대의 소설의 특징은 민중문학, 분단문학, 여성작가들의 두드러진 활동, 특히 페미니즘 소설의 등장, 지적인 소설과 실험소설, 노동현장 소설들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문학과 인간에 대한 기존의 이해방식을 거부하고 여성들의 경험·느낌·역사의식 속에 새로운 시작을 전제로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된다.

박완서는 「살아 있는 날의 시작」, 「서 있는 여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등에서 남성 우월적 사고방식에서 여성의 피해의식을 증언하고 여주인공이 자존의 삶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양귀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현장에 관심 하는 작가이면서도 작은 일에도 깊게 흔들리는 나약하면서도 재빠른 사람들의 얘기를 즐겨 다룬다.

‘소설로 쓰는 여성문제작가’로 지칭되면서 여성의 편에 서서 그 불공정한 삶을 고발하고 증언한 이경자는 창작집, 「절반의 실패」에서 가부장제도와 성차별의 냉혹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이 경험해야 하는 불공정한 희생을 날카롭게 조명하고 있다.

고부간의 갈등, 남편의 외도, 매춘, 이혼, 빈민여성 등의 문제를 다루어 피해의식으로 확대되어 온 여성적 삶을 조명하고 있으나 남성행포에 대한 원색주의의 구호가 난무하는 조약성을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다.

윤정모의 「고삐」는 80년대 초의 민주화운동과 80년대 중반 이후의 반미운동을 바탕으로 혈연이라는 운명적 끈을 풀어 버리고 해방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념적 소설이다. 미국이란 외세의 침략으로 매춘과 윤락이 성행하였고 딸의 타락을 어머니 탓으로 돌려버린 「고삐」는 그 상황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매춘과 윤락을 여성적 피해양상으로 고발한 윤정모의 여성해방적 시각은 정치사회면으로 비판적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받은 중산층 여성들이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박탈당한 채 가정적 삶에 자신의 인생을 제한할 때에 야기되는 정체성의 위기와 방향의 문제를 심리소설적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 오정희의 페미니즘 소설은 여성소외의 양상은 드러나지만 그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아쉬움을 남긴다.

김향숙은 중산층 여성을 구속하고 있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탈피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로 젊은 층을 통하여 묘사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오면서 페미니즘소설은 여성평론가들의 이론적 논거가 앞서가는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났다.

신달자의 「물 위를 걷는 여자」, 김이연의 「가시로 사는 여자」, 김지연의 「욕망의 늪」은 사랑·결혼·일에 대한 현대여성의 구체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다.

「물 위를 걷는 여자」는 독신으로 살더라도 자신의 일을 가지고 성공하는 삶이 진정한 여자의 행복인지와 남편과 결혼하여 가정생활에서 정신적·경제적 여유를 가지는 여성의 삶이 최대의 행복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일을 가지려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현대여성의 삶을 심도 있게 그리고 있다.

김이연은 「가시로 사는 여자」에서 여자로 살고 싶은 여성성의 방황과 출세하겠다는 욕망의 양면성을 지닌 현대여성성을 창조하고 있다.

김지연은 「욕망의 늪」에서 사랑과 일, 결혼과 효도 사이에서 갈등하는 빼어난 체격과 용모를 지닌 한 여성을 얘기하며 사랑은 가식이나 절제가 아니라 순수한 것이며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투철한 직업의식과 함께 혼돈의 극을 달리고 있는 현대의 속물주의적 결혼관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신달자의 「노을을 삼키는 여자」, 손장순의 「아망의 여자」에서 자주적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여성이 나타난다. 그 동안 은폐되어 온 내밀한 인간적 본성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성공과 자신의 삶을 살면서 애정과 쾌락의 문제까지도 눈 돌리는 여성들의 상태와 삶의 저변을 보여주기도 한다. 손장순은 「물 위에 더 있는 도시」를 통하여 불완전한 인간의 혼란을 바탕으로 인간의 무의식 및 분단으로 인한 근친상간을 다룬 환상적 리얼리즘이라는 다양한 기법의 소설을 시도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김인숙은 유토피아를 설정하고 현실의 뒤틀리고 왜곡된 현실 속에서 세계의 질서와 자유의지를 상실한 소외된 인간 존재를 추적하고, 은희경은 우리 시대의 소통불능의 인간관계를 정감 어린 서술

과 사랑의 미혹 등으로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아내의 상자」에서 인간의 빈자리와 외로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경지는 「사랑과 상처」에서 한국의 근대사를 바탕으로 남성중심사회를 견뎌온 여성들의 일상이 묘사되면서 작가의 생명과 사랑에 대한 따뜻한 여유로 변하고 있다. 배운 것 없이 천덕꾸러기로 길러져 던져지듯 시집을 가서 격동의 세월을 살아낸 강인한 여성의 삶을 통하여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큰 여성으로 이어지는 여성성의 드러내기와 여성주의적 시각을 만날 수 있고, 신경숙은 사회구조 속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내면세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삶의 외곽으로 떠돌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대의 정신적 미아들을 문제 삼고 있으면서 가족 해체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공지영은 「무쏘의 빨 처럼 혼자서 가라」는 여성주의적 삶의 당당함을 「착한 여자」에 오면서 희생과 헌신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한 재고를 시사하고 있으며 「봉순이 언니」를 통하여 시대의 사회의 모순을 개인의 삶 속에서 천착해가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낙관론적 세계관을 보이고 있다. 양귀자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통하여 페미니즘을 시도하였으나 여권론적 이론을 전개하는 데는 무리한 발상으로 실패하고, 「천년의 사랑」에서는 운명과 환상을 원용한 낭만주의적 애정을 나타내었고, 「모순」에서 삶이 가지는 모순을 인간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규격적으로 짚 맞추고 있다.

#### 4. 한국 현대 여성문학의 전망

이데올로기나 사상의 체계화 현상은 바람직한 예술을 낳을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장르의 개발, 실험의식의 추구 등은 있어야 되겠지만 시의 본질을 변색케 하는 비약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성시의 情恨을 극복해야 할 여성시의 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 같은 한국여성시의 전통맥락은 이어가야 할 것이며 여성적 릴리시즘도 다양한 시의 한 특성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유행가 부르듯이 사회의식만을 주장해야만이 시이고 현실과 전혀 떨

어진 상태에서 자기탐닉의 도락이나 순수주의의 지향은 별 볼일 없는 시가 된다는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김재홍 교수는 여성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깊이’와 ‘끈기’의 문제로 풀이하었다(『70년대 시의 반성과 전망』, 현대문학, 1982.10, p.107).

‘깊이’에서는 역사의식·종교적 깊이·철학성에 대한 깊이의 결여를 지적하고 ‘끈기’에서는 내용·형식면에서 시적 호흡을 다양하면서도 길게 유지하는 연작시·장시·서사시·극시에 대한 몰두를 시사하고 있다.

위의 지적과 같은 부분적인 결함을 인정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철한 작가의식이며 역사의식인 것이다.

지나친 순수주의의 결벽증, 고정된 민중주의의 외침, 달관주의의 체념 등에서 보여진 지나친 편향성은 오히려 시의 자유를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화려한 미사여구의 나열을 지향하고 감성과 지성의 조화로운 통제 등은 여성시의 방향을 밝게 조명하게 될 것이다.

범람하는 여성시의 일상적 삶의 무상성이나 감정을 여과시켜 보다 낮설게 내세우기의 한 양식으로 표현하는 형식에 관심을 갖는 동시에 현실에 눈을 돌리고 무엇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의 철학적·역사성에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안일과 지나친 자기폐쇄성의 고고함에서 탈피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진정한 자유민주화 아래에서는 인간해방이 논의될 수 없으며 성차별 및 남녀불평등이 불식된 사회에서는 여성해방이라는 논의는 우스운 일이 되는 것이다.

여성권리가 문제되는 사회는 남녀가 평등한 법률적·제도적·사회적·관습적·정치적·문화적 공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이다. 그렇다고 역할 분담론의 엄격한 핵을 긋지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역할이나 전체 역할에서 그 고유의 특성과 능력을 인정해야 하고, 거기에 상당한 제도적 장치를 보장받아야 된다고 본다. 또한 사랑이란 희생이고 봉사이지만, 그것을 당연시하고, 모성적 권위를 그냥 구시대적 모성적 인내로 돌려버리려는 안일성에서도 탈피해야 한다. 공격적이거나 소극적인 부분은 성차

의 구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차에서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성의 무조건적인 인내와 양보를 요구할 수 없는 다양한 성취와 좌절의 사회구조에 여성도 살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소설은 위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고 체험하는 과정 속에 그러한 돌파구를 제시하여야 하고 남녀대립 구조나 여성적 절규가 아닌 화합과 양보와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비전 제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작가들의 능동적인 사회관이 선결되어야 하고, 사회의 흐름과 여성의식의 변화양상에도 민감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 5. 맺음말

기존의 현대문학사는 여성문학의 연구를 통한 새로운 문학사의 정리가 완료될 때 완전한 문학사의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여성문학사의 흐름과 그 특성은 남성과의 차별화이기보다는 경험적 증언을 바탕으로 한 차이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문학사의 또 다른 소외문화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길이 우리 문학사의 올바른 정립이라고 본다.